

미국 '아시아계 증오 독버섯' 확산

뉴욕타임즈 최근 사례 분석

지난해 16개 도시 149% 증가

코로나 불안 인종혐오로 변질

아시아계 단결...정치세력화 속도

“너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중국으로 돌아가. 바이러시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를 계속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요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뉴욕과 보스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증오범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뉴욕타임즈(NYT)는 아시아계를 겨냥해 이렇듯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증오 범죄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5일 집중 조명했다.

NYT에 따르면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26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15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아시아계를 폭행한 경우가 15건 중 14건에서 26건 중 5건으로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를 향한 증오가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 혐오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3월 일리노이주 사카고에서는 60살 중국계 남성에게 여성 두 명에게 침을 맞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해 3월 뉴욕 맨해튼에서는 23살 한국계 학생이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으며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지난해 6월 뉴욕주 올버니에서는 미용용품 직원 김모(27) 씨가 한 고객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올해 1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한 보자가 버스에서 견어차였으며 “중국인은 모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옮

겼다”는 말을 들었다.

올해 2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한국계 공군 전역자인 테니 김(27)이 안면을 강타당하고 “당신은 중국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모욕을 당했다. 올해 3월 뉴욕 맨해튼에서는 65살 필리핀계 여성이 흑인 남성에게 견어차이고 여러 차례 짓밟혔으며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언어폭력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증오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칭크(chink)와 차이나맨(chinaman) 등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성행했다. 지난해 3월 인디애나주 마틴즈빌에서는 한 한국계 의사가 주유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다가 직원에게 “절대 돌아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기물파손 유형 증오범죄도 코로나19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9월 미네소타주 오스틴에서는 한 중국계 남성이 집 앞 잔디밭에 불타고, 그 자리에 “중국 바이러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 역사에서는 “중국인을 모두 죽여라”는 낙서가 세

차례 발견됐다. 올해 3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마스크 의무착용 명령 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아시아계 미국인의 식당이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낙서로 훼손됐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이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맞서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투표 역사가 짧아 정당일체감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부동층을 자처해온 아시아계 미국인이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최소 158명으로, 2018년 선거 당시보다 15% 증가했다.

NYT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차기 뉴욕시장 후보도 아시아계 정치인인 앤드루 양이다.

지난달 23일 컨설팅업체 폰테스 어드바이저스와 코어 디지전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이 16%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며, 2위인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10%)에 6%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의 타임스스퀘어에서 4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아시아계 주민을 겨냥한 증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4일 시위대가 색칠한 부활절 달걀을 쥐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사 쿠데타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소수민족 청년들 반군에 속속 입대

카친 독립군 등에 젊은이들 몰려

“무장봉기론 시민들 고통” 반대론도

“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자원해 입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3살된 청년 조 푸는 카친족 반군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털어냈다. 그는 지난달 13일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집을 나온 뒤 다음날 새벽 카친주의 주도 미치나에서 차를 타고 카친 독립기구(KIO) 본부로 향했다. 이로부터 4시간 뒤 그는 무장단체인 카친 독립군(KIA)에 정식으로 입대해 미얀마 정부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됐다.

5일 현지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수십년 간 자치권 확보 투쟁을 벌여온 여러 소수민족들은 그들을 탄압해온 다수족인 버마족과 함께 군사정부 타도에 나서고 있다.

이전까지 주류인 버마족 출신 정치인들은 소수

민족 무장단체들이 국가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간주했으나 군부 쿠데타 이후로 상황은 바뀌었다. 미얀마 군경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연일 무차별 총격을 가해 유혈 참사가 끊이지 않자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에 맞설 ‘연방군’에 참여해 시민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카친 독립군은 지난달 12일 이후 거의 매일 카친주 곳곳에서 미얀마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다수의 청년들을 자원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지난달 군부가 발표한 한달간의 일방적인 휴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물론 미얀마군과 반군부 세력 간 전면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카친 독립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4살의 여성 꼬 링은 “무장혁명을 일으키기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고한 시민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군부에 맞설 무장 저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하루 6만3천명 확진...“4차 대유행 진입”

영국변이로 아동 감염률도 상승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뚜렷이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다만 미국 전역에 백신 보급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방효과 덕분에 지난 대유행 때보다 장기간이 덜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미 미네소타대학 감염병연구정책소의 마이클 오스터홀 소장은 4일 NBC 뉴스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미시간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400명에 달한 점을 거론하며 “중서부를 중심으로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담당 인수위원회 고문으로도 참여했던 오스터홀 소장은 “중증 환

자, 중환자실을 비롯한 입원 환자, 특히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도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는 지금 여러 면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진입하고 있다”며 “유일한 희소식은 현재의 백신이 B.1.1.7(영국발 변이)이라는 특정 변이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터홀 소장은 영국발 변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훨씬 더 강한 전염력을 발휘하는 것 같으면서 “현재 아이들의 감염률이 어른과 같은 수준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2~3개월이 4차 유행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시민 저항 탓에 봉쇄 조치는 권장하지 않지만 대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中역지에 분노한 한인 고교생들...美도시 설득 ‘한복의 날’ 제정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해의 최초 선포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이라는 억지 주장에 분노한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이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 냈다.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는 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Korean Hanbok Day)로 선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리아안’이라는 단어를 정식 명칭에 삼입했고, 한복도 한글 발음 그대로 ‘Hanbok’으로 표기했다.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에서 시행

되는 한복의 날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AAYC의 설명이다.

한인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 나선 것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복 논란을 접한 브라이언 전(18) AAYC 대표가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한복이 한국의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고 뜻을 모았다. 미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한국 한복의 날’을 제정한다면 후세에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뜻을 모은 학생들은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

들에 한복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고,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진너 시장은 한복의 날 선포문에서 “한복의 기원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한복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뜻을 밝혔다. 테너플라이시는 오는 6일 한복의 날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AAYC는 테너플라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도 한복의 날 제정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 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